

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42.46	↓ 코스닥	798.73
	(+45.37)		(-0.51)
↑ 금리	3.267	↓ 환율	1331.80
	(+0.006)		(-2.80)

中 저가 제품
반덤핑 갈등
내수보호 vs 독점우려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2월 2일 금요일

m-커버스토리

中 수출통제, 홍해 무력충돌 등 공급망 리스크 복병

韓 수출 목표 7000억달러

자원 국유화·EU 환경정책 등 세계 공급망 위협 요인 산적 대기업 33%만 문제대응 가능 중소기업은 준비 조차 미흡



지난해 첨단분야 수출 호조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인 7000억달러로 제시했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인 7000억달러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이 되살아나고 지난해 수출 플러스를 견인한 자동차 등 첨단분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그 근거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용 희귀금속과 흑연, 요소 등 중국발 수출통제로 본격화한 공급망 리스크

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인도네시아 원광수출금지과 멕시코 등 주요 리튬 보유국의 자원 국유화 등 공급망 위협 요인은

줄을 서 있다.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본격화하며 공급망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법, 예코디자인규정 환경정책은 추후 강력한 규제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해상 운송로인 수에즈운하로 향하는 홍해 무력충돌도 글로벌 물류 차질을 빚으며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 명분으로 친이란 예멘 반군이 홍해 민간 상선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 등 다국적군의 반격,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패권 경쟁이 유럽 등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했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이 중동으로 전선을 확대한 모양새다.

문제는 중소 협력업체 위주로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 향후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달 발표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인식과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633개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10곳 중 7곳은 공

급망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85.8%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문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33.5%에 불과했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 어느정도 준비돼있다고 답한 중소기업 비중은 22.5%로 대기업(5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의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결국 공급망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포스코나 고려아연 등은 니켈이든 리튬이든 각자도생으로 확보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美 연준, 기준금리 4연속 '동결'

파월 "3월 인하도 어렵다"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 목표치 도달 확신 어려워

"3월 금리인하는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이 시장의 3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충분히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에 도달했다는 강한 확신이 들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많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일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22년 3월 0.25~0.50%에서 지난해 7월 5.25~5.50%까지 오른 뒤 멈춘 상태다. 이로써 우리나라(3.50%)와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p)를 유지하게 됐다.

◆ 3월 금리인하 가능성 낮아

이날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추가긴축(additional policy firming)의 문구를 삭제하고,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큰 확신을 얻기까지는 금리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구를 더했다. 더 이상의 금리인상은 없지만, 당분간 금리인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제품 파월 의장도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를 너무 빨리 또는 많



연준이 물가지표로 활용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지수는 12월 기준 2.9%로 집계됐다. PCE지수는 지난해 1월 4.7%에서 3월 4.6%, 6월 4.1%, 9월 3.7%로 꾸준히 떨어졌다. 목표치에 진입했음에도 아직 물가안정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인하하는 정책은 지금까지 유지된 물가 방향을 뒤엎을 수 있으므로 2%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이 물가지표로 활용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지수는 12월 기준 2.9%로 집계됐다. PCE지수는 지난해 1월 4.7%에서 3월 4.6%, 6월 4.1%, 9월 3.7%로 꾸준히 떨어졌다. 목표치에 진입했음에도 아직 물가안정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3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제품 파월 의장은 "지켜봐야겠지만 FOMC 위원들이 3월 회의때까지 물가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확신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근시일,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 투자은행, 금리인하 5~6월부터 4차례 전망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5~6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하면서도 추가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만큼 금리인하 시작까지는 3개월 이상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수검표) 실습에서 서울시 서관위 관계자들이 비례국선 투표지 수작업 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의료개혁 골든타임... 지역 필수의료 살릴 것"

尹 대통령 여덟번째 민생토론회 인력확충 등 4대 정책 패키지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드렸고, 그 실천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왔다"며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이뤄졌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與 '신 주류'로 부상하는 친한계 인사들
- ▲ 정부, 설 연휴 안전관리 총력... 재난 상황실 24시간 근무

/사진 뉴스1

- ▲ 쌀 의무매입·농산물 가격보장 시행에 2조 들어... 부작용 우려
- ▲ 민주, 추미애 송파갑 전략공천 검토... "석동현 대항마"



- ▲ 최영범 전 홍보수석,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취임승인
- ▲ 권익위, 설 연휴 공직자 금품·선물 수수 집중점검 착수

/사진 뉴스1